

법정 스님 가을 정기대중법회

“행·불행은 받아들이는 자세에 달려있어요”

법 문 : 법정 스님(조계종 원로)

일 시 : 2008년 10월 19일

장 소 : 서울 길상사 극락전



법정 스님.

사진제공=길상사.

깊어가는 가을, 초록 잎의 자성(自性)에는 본래 붉은 빛도 포함돼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다. 뜨거운 태양에 온 몸을 드러내 보인 나뭇잎이 그간의 인고를 붉은 훈장으로 당당히 드러내듯 가을은 세상 만물을 역동적인 흐름 속에 나름의 빛과 형태로 진지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서울 성북동에 자리한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법정 스님을 모시고 가을맞이 정기 대중법회가 열렸다. 글과 법문으로 참 삶의 지혜를 일러주시는 스님의 가르침을 올 가을 또 하나의 풍성한 결실로 맺어보는 자리다.

10월 19일 일요일 오전 10시, 길상사 극락전을 중심으로 도량 곳곳에는 스님의 법문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하는 2000여 명의 불자들이 모였다. 예불을 모시고 관세음보살 정근에 이어 법정 스님의 가을법문을 경건히 청했다.

청명한 가을을 사노라면 삶이 꽃피고 감사해 집니다. 도심도 그러하겠지만 산중 생활도 날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날이 우중충하고 비바람이 치면 괜히 짜증이 나지요. 오늘 같은 날은 마음도 활짝 열려서 매우 즐겁습니다. 연일 맑게 갠 가을 날씨 덕에 저도 여러 가지로 일상을 흥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빨래를 널면서 서정주의 시 '푸르른 날'을 외워봅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켜 단풍 드는데 눈이 나리면 어이 하리야, 붉이 또 오면 어이 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이렇게 두런두런 시를 외다 보면 더 마음이 흥겨워지고 사는 일이 새삼 즐거워집니다.

시는 언어의 결정체입니다. 그 안에 우리말의 맛이 살아있습니다. 시를 외다보면 그 안에 아름다운 우리말 속 얼굴이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를 읽어보십시오. 지난 날 소년·소녀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세월이 흘러 까맣게 잊은 망각된 그 무엇이 있지요. 시를 읽으며 삶을 새롭게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시를 읽으면 피가 맑아집니다. 험한 세상에 무뎠던 감성의 녹이 벗겨집니다.

저는 요즘 밤마다 '왕유'와 '백낙천'의 시를 읽다 보면 새삼 사는 일이 고마워져요. 우리는 요즘 눈을 뜨기 무섭게 지겹고 짜증스런 뉴스에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경제를 살리려는 커녕 날뛰는 경제에 갈팡질팡 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과연 '가진 것만큼 행복한가?'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과연 행복한가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가지지 못한 이들은 불행한가요? 우리는 행·불행의 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많이 가졌으면서도 베풀 줄 모른다면 불행한 것이고 적게 지녔지만 많이 베풀었다면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러니 불행과 행복은 외부상황이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수용 여부의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에 달려있습니다. 요즘처럼

옛 선현들의 삶으로부터 배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250여 년 전 선비 장훈의 글 '평생의 소망'에 따르면 인왕산 골짜기 아래 허름한 집 한 채에 매혹돼 그 집을 꾸미고 싶은 소망에 부풀어 있는 바람과 만납니다. 엽전 500냥의 시가를 지닌 집을 사서 집 들레에 꽃을 가꾸는 꿈에 마음에 들먹이죠. 그는 평생 소망의 주거 공간을 제시합니다. '내가 누리는 행복' '일상에 쓰는 도구' '늘 하는 일' '귀중히 여기는 책' '즐기는 경치' '조심할 것' 등을 차례로 나열합니다. 그 중 '맑은 북 여덟가지'를 들어 보입니다. 당시는 영·정조시대 때문에 부흥기였습니다. '태평 시대에 태어난 것' '서울에 사는 것' '다행히 자신이 선비 축에 낀 것' '문자를 대중 이해하는 것' '산수가 아름다운 산을 차지한 것' '꽃과 나무 천 그루를 지닌 것' '마음에 맞는 벗을 얻은 것' '좋은 책을 소장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떠한 맑은 북을 누리고 지녔는지 들춰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맑은 북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새삼 세 삶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경전이란 글이건 자기 자신의 삶이라는 거울에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책을

읽는 의미가 있습니다. 책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거울로 삼는 것이죠.

나날이 새로워지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뒤에 서 내 자신을 받쳐주고 있는 까닭입니다. 바로 스승과 말벗이 될 수 있는 몇 권의 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또한 출출해지거나 무료해지려할 때 마시는 차가 있습니다. 산중에 기거하면서 차 맛을 모른다면 무슨 낙으로 살까 문득 생각했습니다. 차를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는 삶의 맑은 여백과 같은 것이죠. 더불어 굳어지는 삶에 탄력을 주는 음악이 있고 내 일손을 기다려 주는 채소밭이 있다는 사실이 고맙습니다. 채소밭이 내 삶을 녹슬지 않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한적한 삶을 살고 싶은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가하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바를 누리고픈 소망이죠. 그런 꿈은 지닌 것 자체로 풋풋한 가슴을 선물합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본능적인 소망이죠. 앞서 말한 선비의 소망과 같지요. 미래

는 이들이 무수히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은 단 몇 분만이라도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 간절히 소망하는 삶인데 말입니다.

존엄한 목숨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자기 혼자만을 위해 살거나 이유를 불문하고 스스로 목숨을 내던진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지낸다 하더라도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삶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한 권 원하지 않건 간에 말입니다. 제 기본대로 그 흐름을 이탈하는 것은 명예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동서고금의 선각자들이 체험을 통해 말씀하신 바입니다. 자살은 자해로 인한 업(業)을 짊어지고 다음 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윤회의 사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업이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고 싶다고 생각하면 결국 죽습니다. 업의 파장이요. 업의 파장을 따라 단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습관이 됩니다. 그것은 업력이 되고 업장으로 굳습니다. 마치 물리학의 관성 법칙과 같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막대한 고통은 늘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흐린 날이 있으면 반드시 맑은 날이 있습니다. 삶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쾡하고 해 뜰 날이 온다는 노래가 있잖습니까? 외부 상황이 변하듯 내면적인 생각도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자살 충동을 겪는 이들은 당시의 절망감에서 추락해 버리는 것이죠. 막대한 빚에서 벗어나 맑은 정신으로 인간 삶을 살필 수 있었다면 그 한 때의 외골수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로 새로운 자기 삶을 실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환이 있을 때는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것은 한 때입니다. 어려운 것은 고정돼 있지 않고 변합니다.

어려움이 닦이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일방적인 늪의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가까운 친구를 만나서 짐을 나눠야 합니다. 절은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종교는 그것을 깨우치게 하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해결기약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명대로 살다가 가지요.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명의 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고마움을 세상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가을을 맞이하십시오.

정리=기연숙 기자 omflower@buddhania.com

시 읽으면 피 맑아지고 무뎠던 감성의 녹 벗겨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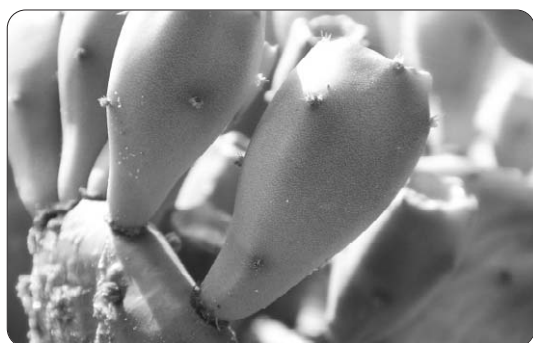
어려울 때 고정관념 벗어나 절에서 짐 나누세요

를 설계하는 상상만으로도 현재의 삶은 꽃피게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 찌들지 않는 꿈을 꾀보십시오.

송나라 시인 소동파는 '적벽부'에서 '저 강물의 맑은 바람과 산중의 맑은 달이여. 귀로 들으니 소리가 되고 눈으로 보니 빛이 되는구나. 가지고 자 해도 말할 사람 없고 쓰고자 해도 다할 날 없으니 이것은 천지자연의 무진장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연에는 천지자연의 소산들이 무진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요. 이러한 자연을 즐길 줄 아는 이는 흔치 않습니다.

남은 평생에 둥근 달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때 그때 감사하게 받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강산은 본래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바로 강산의 주인입니다. 관심을 안으로 기울이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무수합니다. 그러나 눈을 밖으로만 팔기 때문에 외부 상황의 탓에 걸려 삶을 진실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감싸주고 먹여 살려주는 무진장한 자연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밖으로만 쏠려 그것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날 스스로 목숨을 끊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내 몸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 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를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낮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산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딱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병 예방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름, 비진, 백반, 목, 어깨, 가슴 통증, 협심증, 신경성, 편마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형자,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감은 피부, 위경련(제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빈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 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영보유,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낮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알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북 짓기 / 생활 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 (토요일 09 : 00 ~ 22 : 00)

- ◆ 우주의 기운
-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 5행으로 본 인체

-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 신비한 비장따주기
-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 병 예방 비법
- ◆ 실습

나. 2일차(일요일 09 : 00 ~ 13 : 00)

- ◆ 신비한 수치의 비밀
-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 성명 분석 및 작명 비법
- ◆ 단번에 아는 남·녀 궁합 비법
- ◆ 수상 및 관상 보감
-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8. 11. (8)토 오전 9시부터 ~ 11. (9)일 오후 1시까지 (11월 7일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 34만원(육왕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선착순 12명)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kr)